설산스님은?



삼장교학과 선지에 밝아
세수 83세…중생교화 꾸준

설산스님은 1919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15세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의산스님을 은사로 계허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스님은 건봉사 강원을 졸업하고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한암스님을 모시고 참선수도를 시작해 1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건봉사 공비생으로 혜화전문학교(동국대학교 전신) 불교학과를 졸업하기도 했다. 설산스님은 경(經) 율(律) 론(論)의 삼장교학(三藏敎學)은 물론 선지(禪旨)에도 밝으며 항상 석문(釋門)의 도리를 지키고 실천에 앞장서는 수행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스님은 청담스님이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계실 때 스님의 수법제자가 되어 화합종단의 종회의원을 지내기도 했고 출가본사인 건봉사 주지와 실달학원 원장을 맡아 후학지도와 수행교화에 헌신해 오셨다.

현재는 삼각산 정토사에 주석하며 83세라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정진과 중생교화를 게을리 않고 계시는 스님은 회고록 〈뚜껑없는 조선역사책〉과 사찰안내서 〈명산고찰 따라〉를 펴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83세에도 정진을 게을리 않는 설산스님.

느냐?"

"예, 외우고 있습니다."

"영사신명종불퇴(寧捨身命終不退,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물러서지 않는다) 하여라."

일어서서 스님을 우러러 뵈옵고 큰 절을 올린 다음,

"예,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아뢰었다.

육신을 회향하려고 옛 생각이 자꾸 드나보다는 말씀이셨지만, 기자의 귀에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노스님의 간곡한 가르침으로 머문다.

건봉사 장학승으로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육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 정진했던 설산스님에게 일제 치하에 뒤이은 전쟁은 또 한번의 시련이었다. 감로암에서 전쟁을 맞았다. 전쟁을 피해 멀리 충무의 욕지도까지 흘러갔고, 거기서 10여년 동안 국어교사로 지냈다.

욕지도 생활을 접고 동국대에 있을 무렵, 즈계종 종정이신 청담스님이 불렀다. 대뜸 첫 마디가 "초막(처자식)이 있느냐"는 것이다. 없다고 대답하자, 도선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다. 다시 산중에 들어 청담스님에게서 '설산(雪山)' 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이때가 1965년. 청담스님은 수행에 정진하라며 설산수행(雪山修行) 노지백우(露地白牛)라고 쓴 휘호를 내리셨다.

"저기 표구해 모셔두고 하루에도 수십번은 읽고 있지. 도필(道筆)이지요."

'노지백우' 의 뜻을 물었다.

"글자 그대로 푼다면, 넓은 땅 위에 드러난 흰 소. 선가의 말씀인데, 수행을 해서 혜(慧)가 명명백백히 드러난 경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설산스님은 19살 되던해 봄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에 개설된 승려수련소에 입소해 당시 조실스님인 한암스님 문하에서 공부했다.

스님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 대중이 수련생 15명을 합쳐 80여명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대단했습니다. 아침공양을 마치고 나면 〈금강경〉 강론시간이 되는데 조실스님의 지시에 따라 경의 한 대목을 읽고, 곧이어 조실스님이 해석을 하시고 구절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당일 배운것을 정신차리고 듣지않고 한눈팔다가 외우지 못하면 수련생들은 꼼짝없이 입승을 보시는 탄옹(炭翁)스님께 종아리를 맞아야 했어요. 조실스님이나 탄옹스님은 밤에 방선 후 새벽 세시까지 장좌불와를 하시는데, 탄옹스님은 앉은 자세로 10분간 누웠다가 그대로 다시 일어나 앉아 계십니다."

스님은 당시의 치열했던 구도열기를 회상하시듯 눈을 감으시며 "한암스님 같은 대선지식이 오늘날에도 나와야 국가나 불교계가 잘 굴러갈텐데…" 혼자말씀을 하신다.

설산스님은 한때 청담스님을 모시고 종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출가본사인 건봉사의 주지 소임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뺏고 빼앗기는 주지 다툼이 싫어 다시 도선사로 돌아왔다. 도선사 실달학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경론을 강의했다. 그러다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길 원하옵나이다' 라고 저녁 송주(誦呪)로 외우는데, 염불하는 스님들이 아주 적었다. 스님은 염불로 불법을 전하겠다며 염불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삼각산 자락에 정토사라는 토굴을 얻어 만일염불 하기를 발원했다.

"내가 건봉사에서 출가했고, 건봉사가 염불왕생극락 발원의 중심도량이지요. 그런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으니 건봉사에는 갈 수 없고, 그래서 정토사에서 시작했어요."

> 극락이 따로 있나
> '나무아미타불'
> 염불 삼매에 들면
> 내가 있는 곳 극락

오는 9월이면 만일염불을 회향한다. 회향을 앞두고 백일정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향법회를 크게 할 수는 없고 회향날만은 최소 100만의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 하고 부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면 사람들이 눈으로라도 읽으며 나무아미타불을 염할 수 있잖아요."

설산스님은 누구에게나 염불할 것을 권한다.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여섯 글자만 외우면 돼요. 아미타부처님은 10만억 국토에 계시면서 누구라도 부르면 그 곁에 계신다고 했어요. 아미타부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극락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아미타경〉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길, "만약 착한 사람들이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마음 깊이 새겨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레를 두고 한결같이 아미타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외우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아미타부처님께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투시느니라."

삼각산 자락에 몸을 기대어 바람소리 물소리 들으며 사는 노스님이지만, 종단에 대한 걱정이 없을 리 없다. 세상사를 초탈하는 것이 출가수행납자의 본래면목이라고 늘 강조하셨던 청담스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설산아, 처음 정화불사를 시작할 때는 참선수좌들이 큰 절 주지로 가라 하면, 그 이튿날 새벽에 걸망을 지고 다른 절로 줄행랑을 쳤다. 그런데 지금은 저 윗방의 삼십명이 넘는 수좌들이 나한테 주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조르고 있구나. 그들이 왜 주지를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고기맛 알고 돈맛을 알기 때문이다."

볼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청했다.

"학문을 닦고 수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뜻없는 삶은 슬픈 마지막이요, 서로를 위하여 사는 삶은 보람이요, 최고의 희열입니다."

글=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1935년경,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연극공연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뒷줄 오른쪽 두번째 어린아이를 앉고 있는 사람이 설산스님.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 종실스님

인간은 태어난 후 처음에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다음에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그후에는 사회, 즉 직장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최소단위의 사회구성체인 가족을 알게 한다.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게 하는 이 기초적인 훈련이야말로 인간이 사회적 공동체인 것을 최초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으로, 전 생애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학교는 열린사회로 통하는 문과 같다. 그 문을 통하여 사회의 성격과 구조와 규모 등을 스스로 가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곳이다.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동물들의 세계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의 기준이 힘이다. 그러나 인간들의 사회적 규범과 질서의 기준은 나눔이다.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원칙이 그 사회의 가치기준이 되고 예(禮)와 의(義)로 정의된다. 인간은 이 나눔의 실천을 종교와 교육을 통하여 실현한다. 그렇다면 종교의 역할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어야 할까?

종실스님은 대전광역시에서 117개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 20만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는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그 일은 후배들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고 지금은 청소년 자원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운영
생명나누기 실천교육 20년

봉사 센터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또 20년 가까이 청소년 법회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고 고민을 함께 들어주며, 그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어머니처럼 따뜻한 가슴으로 거두어주고 있는 스님이다.

6~7년 전에 내가 중앙승가대학에 재직하고 있을 때다. 어느 날 종실스님이 나를 찾아 학교를 방문했다. 조금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나와는 승가대학의 1년 선 후배 사이라는 것 외에는 나를 찾아 특별히 학교에까지 올만큼 왕래하며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졸업 후 대전에서 청소년 지도를 열심히 하며 산다는 것을 아는 정도였다. 서로 인사 후에 무슨 용무로 왔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인즉 나를 놀라게 했다. 보기에는 여리고 순하게 생긴 스님인데 어디에서 그런 열정과 염원이 솟아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승가대학 졸업 사은회 때 수줍어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진 채 다소곳이 '돌아오라 소렌토로' 를 부르던 종실스님이 아니었다.

내일의 세계는 오늘의 청소년이 주인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만 사천 경전 속의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본적 있느냐, 만약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면 오늘의 한국불교는 밥 얻어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또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리 좋다 해도 지금처럼 그들과 무관하다면 결국 불교는 존재이유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 다른 종교나 사회 단체들은 청소년교육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아낌없이 하여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자원확보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불교계는 아직도 어떤 유행가 가수가 부른 노랫말처럼 관망자적인 입장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중앙승가대에도 청소년관련 학과를 꼭 개설해주기를 거듭 거듭 간청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 후 학교에서 청소년관련 학과 개설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못해보고 사퇴하고 나왔다.

지금 종실스님은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보현행의 실천을 가르치고 있다. 보현행이란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열가지 원력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둘째, 부처



님을 찬탄하는 것. 셋째, 널리 공양하는 것. 넷째, 업장을 참회하는 것. 다섯째,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여섯째,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 일곱째,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 여덟째,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아홉째,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 열째,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45년간 설하신 설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기법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연법이다. 연기법과 인연법을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상호관계 속에서 더불어 존재한다는 말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좀더 구체화한 것이 보현행이다. 종실스님이 운영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에는 특정한 종교나 사회적 관계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의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다. 종실스님은 그들에게 종교목적의 교육이 아닌 생명나누기 실천교육을 하고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느끼게 하여 소중한 생명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고 자기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게 하는 보현보살 같은 스님이다.

정취암 한주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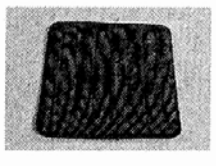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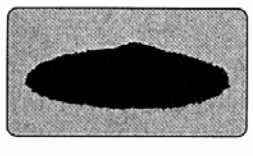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2kg





32종의 한약재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메밀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4kg



※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 금 주 : 김 남 서

☎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봉인사 위빠사나 여름 수련 일정

"그대는 이 순간에도 깨어 있는가"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에게 위빠사나 수행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고요히 관찰 할수 있는 시간에 많이 동참하시어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7월 · 8월 여름수련회 수련일정 ◆

수련내용	날 짜	기 간	회비(원)	지도스님
위빠사나	6월 21일 ~ 24일	3박 4일	7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7월 5일 ~ 8일	3박 4일	7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7월 19일 ~ 22일	3박 4일	7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8월 5일 ~ 11일	6박 7일	15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8월 23일 ~ 26일	3박 4일	7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주 말 수 련	1박 2일	20,000	지산스님

▷ 3박4일 , 6박7일 · 입실 : 오후 5시 · 퇴실 : 오후 3시(유경험자인 경우 주말 수련회에 참여가능)
▷ 주말 수련회 · 입실 : 오후 4시 · 퇴실 : 오후 3시
▷ 준비물 : 좌선하기 - 편안한 복장, 신발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긴팔상의 준비
▷ 연락처 : 031)574-5585, 031)529-5585 ※ 미리 신청해 주세요.

봉인사 한길정진원